

# 바지락

2024년 01-02월호

- 2, 3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노동법률
- 4, 5면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 유성균 조합원 인터뷰
- 6, 7면 노조가 대체다.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 8면 QR코드 활용 꿀팁

바쁜 출근, 지친 퇴근, 즐겁게 바꾸자

\* 제호 글씨 디자인 : 최진숙 금속노조 조합원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2024년 노동법률**

- 01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 1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
- 02 2023년까지 일정 비율만 포함하던,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식대, 상여금 '전액'**을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계산 방법 (예시)**

주 40시간 / 8시간 주휴 사업장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매월 지급 상여금	매월 지급 식대	식사 제공	매월 지급 교통비
사업장	1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5만 원	15만 원	12만 원	13만 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	×	×	전액 ○	전액 ○	× 현물 제공은 미산입	전액 ○

문 : 위 급여명세서대로 급여를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답 : 203만 원(150만 원+25만 원+15만 원+13만 원)÷209 = 9,712원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기존 기본급을 줄이려는 사용자 측의 나쁜 시도가 있다면 반드시 노동 조합과 상담하세요.

- 03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시행 2024. 1. 27)
  -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비롯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 \* 2022년부터 시행했지만,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왔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확대 적용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 재계는 다시 2026년까지 유예하려 하고 있어 확대 적용 시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 04 장기요양보험료가 올랐습니다. 2023년 대비 1.09% 인상으로,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사업주, 가입자 각 50% 부담).
- 05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바뀝니다.
  - \* 육아휴직 사용 가능 자녀 나이 :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기존 3개월에서 변경)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 (통상임금 80%→100%,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 원→250~450만 원).

# “야, 너도 노조할 수 있어!”

## [인터뷰 - 유성균 부평공단 금속노조 조합원]

금속노조,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바지락>은 나의 옆에서 일하는 동료처럼 가깝고, 친근한 금속노조 조합원을 소개합니다.

첫 주자로 부평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유성균 금속노조 조합원을 만났습니다.

###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A** DGF오토모티브라는 한국지엠 협력사에서 자동차 각핏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했습니다. 이전에도 아웃소싱으로만 일했는데, 급여가 월급날 제때 들어오지 않는 일도 있었고, 사장의 갑질도 있었고, 일이 없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도, 월급이 밀리고 제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고, 가입했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이 부담스럽거나 어렵진 않았나요?

**A**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노동조합에 관해 잘 알지 못했고,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입해도 되는지,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에 고민했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월급이 밀리지 않습니다. 해고 걱정 없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장 눈치 보지 않아서 좋습니다.

### 노동조합 가입을 망설이는 노동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A** 노동조합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가입이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가입 절차나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해고와 고용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사장과 관리자들이 갑질하지 않고, 월급이 제때 나오니 정말 좋습니다. 부평공단 노동자들이 모두 금속노조 가입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투쟁해서 우리 공단 노동자의 권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조합이 대세다

조합원 수 꾸준히 증가

**“망설이지 말고,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노동조합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보수언론과 경영단체는 노동조합에 대한 온갖 음해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권과 자본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2016년 211만 명에서 2021년 293만 명으로 82만 명 늘었습니다. 매년 16만 명이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 ● 민주노총, 대기업·정규직·남성만의 노조? 가짜뉴스

2016년 민주노총 조합원은 73만 명이었으나 2021년에 10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성 조합원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두 배 늘었고, 비정규직조합원은 17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38%가 여성이고 민주노총 조합원 네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이나 사내하청 같은 취약노동자입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정규직·남성만의 노조라는 언론과 정치인의 주장은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금속노조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16년 15만 명에서 2021년 19만 명으로 커졌습니다. 매년 8,600명씩 늘었습니다. 그러나 베이비 붐 세대 노

동자가 해마다 큰 규모로 퇴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년 1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새롭게 금속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세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 노동조합 조합원의 증가세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특정 영역을 넘어 전 산업 영역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흐름입니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처럼 노동시장 약자 지위에 있는 이들의 노조 가입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노조 가입은 이제 대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세요.

## 노동조합, 낯설고 어렵다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뭉친 힘’으로, 사업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만든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노동자를 위해 만든 단체이자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죠.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자연스레 갖는 많은 권리와 똑같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 왠지 멀고 낯설고 망설여지나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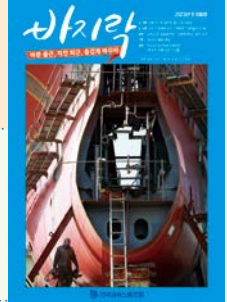
이미 10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모여서 자기 일상을 살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는 전국 어디에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힘을 키우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장을 바꾸고,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노동자라면 주저 말고 노크하세요.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1811-9509



스마트폰 더욱  
스마트하게 쓰는 법

###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찰칵



#### 공단노동자신문 <바지락> 지난 호 보기

꿀팁. <바지락>을 모바일로 볼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면 유익한 실전 노동법과 다양한 정보,  
지난 내용이 궁금하다면, 찰칵!



#### 민주노총 노동상담페이지

전국 어디서나 무료 노동상담 전화 1811-9509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받고 싶다면? 찰칵!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삶과 미래를 바꾸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입문의 ☎ 1811-9509**

### ✔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금속노조와 함께 지킵시다.

지난 12월 29일,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고 시정 기회를 주는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왔는데, 다시 2026년까지 연장하려고 합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더 많이, 오래 일하는데 생계가 막막하고, 일자리마저 위태롭습니다. 일하다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 평균 고용인원은 20.7명입니다. 산업단지 대다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기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바꾸고, 금속같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와 함께합시다.